

세미나 위원회



서동현
현이앤씨 대표이사
세미나 위원회 위원장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의 세미나 위원회는 안상로 회장이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추진할 수 있는 세미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막연하였으나, 저탄소 녹색 성장과 에너지기술 세미나, 신재생 에너지 현장을 견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미나 위원회의 방향이 정해졌다.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녹색성장의 주춧돌로 선포하면서 그린에너지는 정부와 산업계의 화두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에는 61%로 축소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에는 11%로 현재 대비 4.6배로 확대하여 에너지 공급의 탈 석유화를 실현코자 추진 중이다.

이제는 건설 분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의 접목을 통한 전략적 발전 방향 정립을 도모할 시점이며, 이러한 점에서 안상로 회장은 우리 세미나위원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하기로 하였다.



그림 1. 대전 대덕연구단지 대림연구소



그림 2. 용인 코오롱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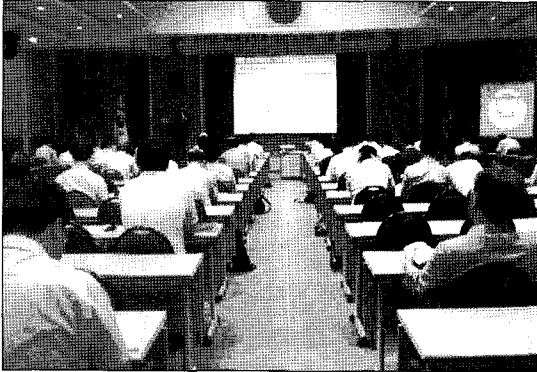


그림 3. 세미나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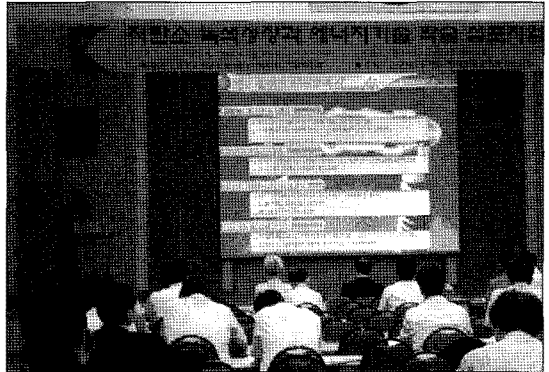


그림 4. 발표 광경

이에 따라 2009년 6월 12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 대덕연구단지 대림연구소와 경기도 용인 코오롱 연구소의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대덕 연구단지 대림연구소는 아파트와 주택에서 조명과 전기 에너지를 태양열 에너지로 이용하는 그린 주택을 선보였고 용인 코오롱 연구소는 지열에 관한 플랜트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연구소 전체가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 제로 사무실을 선보였으며, 연구소가 자랑하는 지열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09월 7월 2일 한양대 HHT에서는 한국지반공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에너지기술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지식경제부 이민우 서기관의 그린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경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연과 경상북도 성기용 에너지정책과장의 앞으로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연계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또한, 지열에너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강연이 있었는데 중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부 한정상 교수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 시스템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국내에서의 사업화 필요성에 대한 강연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와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우리 세미나 위원회의 간사인 청운대학교 철도행정토목학과 김준석교수의 지열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GS건설 기술연구소 인프라연구팀 박시삼 연구원, 대한주택공사 박종배 주택도시연구원, 코오롱 건설 백성권 차장의 발표에서 지열에너지 이용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태양광, 풍력 및 조력발전을 이용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현황소개와 문제점 등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심포지움은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에 기인하여 국가 녹색성장 발전을 위해 우리 토목인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실감하는 자리였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 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 규제에 대한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공급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동시에 세미나 위원회를 지원해주신 여러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